

베트남(호치민)의 주요 국내기업

삼성 1996년 베트남 진출, 호치민 포함 전역에 6개 제조공장 운영 중
한국계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총액 중 \$180억 USD이상 투자, 베트남 GDP 25%를 삼성 관련 생산이 차지
매출/규모 : 베트남 내 한국 기업 중 FDI 최대치 달성 -> 명실상부한 1위

LG전자 호치민 인근 포함 베트남 내 총 3개 공장 운영
글로벌 스마트폰·가전 공급으로 매출 높음

롯데 2008년 베트남에 롯데마트, 롯데시네마, 롯데면세점, 롯데리아 등
호치민에만 12개 롯데마트 지점 보유, 고급 쇼핑 수요로 적극 성장 중

이마트 최근(2024년 12월) 호치민 고밥(Go Vap District)에 첫 매장 오픈,
한국형 유통구조와 멤버십 중심 전략

CJ그룹 2004년 베트남 진출
CGV 영화관, CJ Foodville(베이커리, 카페), CJ Cheiljedang(식품), CJ OliveYoung(헬스, 뷰티) 등 진출

신한은행 1994년 호치민지점 개설, 베트남 내 한국계 은행 중 최대 자본금 보유
ANZ Vietnam 리테일 부문 인수 등 적극 확장 전략

이니스프리 2016년 호치민 첫 진출, 현재 베트남 내 21개 매장 운영 중
젊은층 중심 뷰티 브랜드로 높은 인기.